

부부 위기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다.

2025년 12월 9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육체적인 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르다.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낯선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남자는 수수끼끼와도 같은 존재인 여자를 알아가야 하고, 여자 역시 남자를 알아가야 한다. 여자에게도 남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다.

간혹 둘 중 한 사람이 '나는 옳고 상대는 그다지 옳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 대개 여자들은 자신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를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배우자 재교육'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당연히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남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여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안의 일부를 내려놓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차이점이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그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관계의 토대이다. 비록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지만, 혹은 당신은 여자이고 나는 남자이지만,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두 사람은 자기 생각을 조금씩 접게 되고, 그 대신 감사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어쨌거나 상대방은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고, 바로 그 점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여성은 남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고, 남성 역시 여성을 통해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얻으면서 둘 사이에 더욱 확장된 일체감이 형성된다.

낙태된 아이를 매개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묶여 있다. 그러한 결속은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거의 관계를 좋은 방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배우자를 온전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헤어짐으로 인한 고통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설사 낙태된 아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위한 고통과 애도가 내면에서 완료되어야 하고, 아이를 위한 자리를 부모의 가슴속에 마련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역동이 표면에 드러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일단 표면화된 뒤에는 애정과 배려의 마음으로 작별을 고향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느낌에 솔직해지는 것, 그게 바로 치유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더 나은 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남녀가 함께 인간적인 단계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동등함을 전제로 한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내가 기꺼이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치유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남은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 당신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영혼이 명료함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결론을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시다"

행복은 건망증이 아주 심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질 못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가 계끔 조정하려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 때 영혼은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때 그 문제를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롭게 결정하고 산뜻하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최상의 방법은 과거의 보따리를 남겨둔 채 앞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남편과 부인은 각기 원래 가족에서 취득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은 다 자기의 원래 가족 안에서 익힌 가치관이 옳다고 믿고 있죠. 양심은,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 살고 있는 경찰관과도 같은데요. 각자속한 원래 가족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족체적 양심은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개인이 속한 가족체 안에서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게 바로 양심의 속성입니다. 남편처럼 부인 역시 원래 가족에서 기인한 가족체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두 사람이 만나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흔히 결혼 초반에 두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진행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 가치관이 이 새로운 가족체 안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지요. 대개는 여자가 우세하고 남자는 뒷걸음질 치게 마련이에요. 여자가 승자가 되고 남자는 패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의 가족체에서 기인한 가치관이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 부부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죠.

해결책은 두 사람이 자신의 가족체적 가치관을 존중하듯 상대방의 가족체적 가치관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

게 될 겁니다. 양쪽 모두가 새로운 가족체적 가치관을 마음에 들어 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체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보다 둘만의 새 가치관을 만들어낼 때 그 관계가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부부가 이 새로운 단계를 발견해 낼 때 둘이 함께 부모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이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쪽이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저런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자녀들은 양쪽 부모 모두로부터 똑같이 자유로워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존재를 참고 견뎌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동의할 수 있어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를 거부하는 부모님의 행위나 그분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왜'라든지 '어디에서'로 시작하는 물음은 아무썩에도 쓸 데가 없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인 당신을 붙잡고 사과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여태까지 자식인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나열하며, 그래서 지금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더 나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 이미 손상된 것들이 몇 마디 말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미 행해진 일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행동을 취해야 할 차례일까요?

행동을 취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변화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걸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여자는 요구하고 남자는 채워주고 이런 식의 관계 패턴은 대개 부부 관계를 파경으로 이끌고 맙니다. 부부관계란 동등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와 받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부부관계는 '자녀 대부모' 양상으로 전환되고 맙니다.

문제를 묘사하고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지속시킨다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하는 방법을 아세요?

문제를 자꾸 꺼내놓으면 되겠죠.

문제를 설명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문제로 남아 있게 됩니다.

"당신은 저에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요" 식의 문구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그 사람을 끌어넣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보면 제 아버지가 떠올라요"와 같은 표현이 그런 경우죠. 만일 내가 아버지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당신이 내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말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라고 말한다면 부부 관계는 실제로 타격을 받습니다.